

# 국가승인 통계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의의와 발전방향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6월 4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6월 5일 시행되었다.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서비스를 정의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약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설계공모 확대, 건축기획업무 정립 등 건축서비스 활동에 있어 중요한 사안들이 하나둘 성과로 가지화되었다. 최근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이 국가로부터 승인받았다.(승인번호 제462001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그동안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직접적인 통계는 없었다.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지정통계인 ‘전국사업체조사’와 ‘서비스업조사’의 결과값을 가공하여 일부 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지만 사업체 및 종사자, 매출액 정도의 기초 정보에 한정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는 짚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장현황과 근무환경 실태, 인력 등 변화양상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가공·생산되는 통계 자료의 책임 주체가 없으므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과 대조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건설공사계약통계’ 등 국가로부터 승인받아 작성 중인 통계만 해도 20개가 훌쩍 넘는다. 이는 국내외 건설시장 동향 분석, 건설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정책 등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와 더불어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건축서비스 산업통계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편향된 건축 정책 수립과 나아가 왜곡된 시장 환경 확대로 이어질 위험도 내포한다.

한편 건축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의 필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각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기본법」을 통해 국가 의무로 규정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정책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또한 표준정보로서 국가통계를 필요로 한다.

국가통계는 건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구·사회,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산업생산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전략과도 유관하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국가통계라는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통계작성의 국가승인 과정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다년간 실태조사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건축서비스산업 통계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17·2019·2021년에는 연구원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세 차례 시범조사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산업으로 재설정하고 모집단 및 표본, 조사항목과 결과표를 설계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시험조사는 특정 연구과제에서 설정한 세부업무라는 제약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조사기획과 실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예를 들면 2017년 조사대상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나 2019년에는 ‘도시 및 조경설계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추가하였고, 2021년에는 건축서비스의 대상을 건축물에 한정함으로써 ‘도시 및 조경설계 관련 서비스업’이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표본수와 조사 문항도 달라졌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근본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의 승인통계를 지향하므로 시험조사 중 수차례 통계청과 업무협의를 거치며 조사방법 등을 보완하였고, 국가승인의 요건과 절차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의 기획뿐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과 관리를 위한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통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 건축공간연구원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정책 지원 및 연구 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 조사대상 및 표본 수는 직접적인 조사 경비와 연동되므로 당해연도 사업예산 규모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 관계자 업무협의 과정

- (2022.4.5) 통계작성 승인신청 계획서 및 문서 검토(통계청 산업통계과)
- (2022.1.25) 통계표본 설계 방법 및 요건 협의(통계청 표본과)
- (2021.11.9) 통계작성 신청서류 검토, 권한 확보방법 협의-법을 개정안,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신청 방안(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 (2021.4.9) 통계표본의 수, 층화방법 등 표본 설계 자문(통계청 표본과)
- (2021.2.18) 통계작성 당위성, 실태조사 책임 및 통계작성지정 기관 지정 논의(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 (2020.5.20) 통계작성승인 신청서 내용 검토(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 (2019.6.17) 승인통계 작성 요건, 절차 등 일반사항 검토(통계청 경제심사조정과)

이를 위해 우선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2022.3.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질적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 위임 조건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실태조사의 위임’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하였으며, 2022년 5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제1호 통계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작성 승인이 고시되었다(통계청고시 제2022-211호).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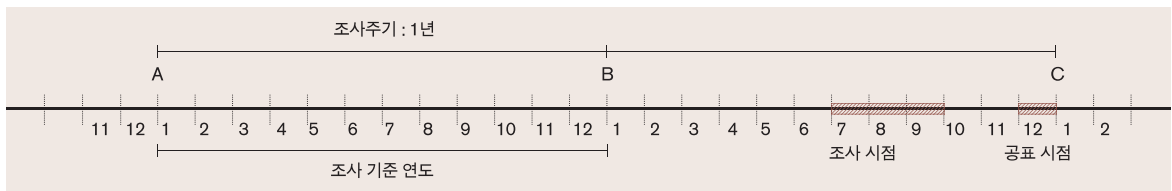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1)’ ‘인테리어 디자인업(M73201)’에 속하는 산업이다. 이는 대분류(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세세분류 산업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건축 실내공간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위의 3개 세세분류 산업을 모집단으로 하며, 종사자 규모별로 7개로 층화한 후 표본을 정하는데, 금년에 시행하는 1차 실태조사의 총 표본 수는 900개다. 조사 기준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대상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합계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9,414	2,171	536	240	68	46	31	12,506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51	855	550	423	104	81	31	4,095
인테리어 디자인업	1,757	258	72	23	4	1	-	2,115
전체	13,222	3,284	1,158	686	176	128	62	18,716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기간



점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이며, 매년 시행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는데, 크게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분야별 종사자 현황과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 및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A.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B. 해외사업 및 해외업체 협업,

C. 정보기술 및 시설 현황, D. 교육 및 홍보, E. 인력 및 근로환경 현황, F. 사업체 일반현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3개의 세부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실태조사 내용은 단순히 산업 규모의 변화 추이를 넘어 그동안 건축서비스산업에서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황 및 여건 전망, 발주제도, 대가 산정 등 산업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 및 교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생산성·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문항: 최종 승인 문항**

부문	조사항목	
(A)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A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분야	A8. 민간 프로젝트 대가 산정 방식 및 평균 대가
	A2. 매출액과 수주액	A8-1. 대가 산정 방식별 수주 건수
	A2-1. 매출액	A8-2. 대가 산정 방식별 평균 대가
	A2-2. 수주액 및 비중(공공/민간 프로젝트)	A9. 업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프로젝트 기획업무 수행 건수 및 소요 비용
	A3. 제인(인찰) 및 수주(낙찰, 수의계약 포함) 프로젝트 건수	A9-1. 프로젝트 기획업무 수행 건수
	A4. 업무 분야별 수주액 비중	A9-2. 프로젝트 기획업무를 위해 소요된 비용
	A5. 수주액 상위 발주처 유형	A10. 향후 진출 계획이거나 관심 있는 업무 분야
	A6. 공공 프로젝트 수주액 상위 발주 방식	A10-1. 건축서비스 분야
	A7. 민간 프로젝트 수주액 상위 발주 방식	A10-2. 건축서비스 외 분야
	(B) 해외사업 및 해외업체 협업	B1. 해외 프로젝트 수행 유무
B1-1. 해외 프로젝트 계약 건수 및 매출액		B2. 해외 프로젝트 참여 의향
B1-2. 해외 프로젝트 주요 계약 성격		B2-1. 해외 프로젝트 진출 희망 지역
B1-3. 해외업체와 협업한 해외 프로젝트 건수		B2-2. 해외 프로젝트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C) 정보기술 및 시설 현황	C1. 스마트건축 소프트웨어 및 장비 보유 현황	C3. 소프트웨어 및 장비 활용 수행 업무 비중
	C2. 소프트웨어 및 장비 활용 수행 업무 종류	
(D) 교육 및 홍보	D1. 직원 교육	D3.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체 홍보 방식
	D2.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E) 인력 및 근로환경 현황	E1. 총 종사자 수	E5. 입사자 및 퇴사자 수
	E1-1. 종사자 구성(1): 국적, 성별, 연령, 학력	E5-1. 퇴사 이유
	E1-2. 종사자 구성(2): 부서, 기술자 등급	E6. 평균 연봉(기술자 등급별)
	E2. 종사자 자격 보유 현황	E7. 초과 근무 유무
	E3. 예상 종사자 수	E7-1. 초과급여 지급 여부
	E4. 직원 채용 시 애로사항	E7-2. 초과급여 지급 수준
(F) 사업체 일반현황	F1. 조직 형태	F3. 사무실 운영 여부
	F2. 연간 지출액 및 항목별 지출 비중	F3-1. 사무실 점유 형태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 및 활용 목적

주요 항목	활용 목적
A. 사업 분야 및 수주, 생산성	산업 현황 및 여건 전망 / 발주제도 개선 / 건축서비스의 표준화, 적정 대가 마련
B. 해외사업 및 해외업체 협업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C. 정보기술 및 시설 현황	전문인력 육성 / 산업생산성 향상
D. 교육 및 홍보	생산성 및 지속성 향상 / 산업경쟁력 향상 / 홍보전략 수립
E. 인력 및 근로환경 현황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
F. 사업체 일반현황	산업 현황 및 여건 전망

업경쟁력 향상, 고용 및 창업 촉진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수량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현행 산업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의 단서를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실행 의의와 향후 계획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지난 7월 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10월까지 조사 및 검수가 진행된다. 이어 11월까지 조사내용의 최종 검토 및 분석을 거쳐 통계작성을 완료하고, 12월 건축공간연구원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된 통계는 보고서와 함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되며 전자문서와 엑셀데이터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통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국가승인 통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 업무범위 및 대가, 고용, 혁신, 경쟁력 향상 등 건축서비스산업 현안과 정부의 기본 및 실행

계획에서 거론되는 정책과제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역할 의의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사업추진이나 연구 및 학계 등 다방면의 이용자들, 나아가 일반 국민도 건축서비스산업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산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래 전망이나 경쟁력 향상과 산업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통계작성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매년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품질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점, 또는 주목해야 할 건축서비스 이슈와 주제를 발굴하는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요구되는 쓸모 있는 통계 개발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참고문헌

- 1 건축공간연구원. (2022). 통계작성 승인 신청서.
- 2 건축공간연구원. (2022). 통계작성지정기관지정 신청서.
- 3 건축공간연구원. (2022).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